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박인기*

〈 차 례 〉

- I.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을 논하는 기본 입지
- II. 홀로서기를 위하여- 재개념화 노력
 - 1.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취약성 극복
 - 2. 국어교육학의 정체성과 재개념화의 의의
- III. 살아있는 수요 창출 가로지르기 노력
 - 1. 국어교육학 연구의 학제성
 - 2. 기능주의적 인식 극복
 - 3. 학문적 호환성의 정립
- IV. 국어교육학 연구의 도전 과제들
 - 1. 학문적 자기결정력
 - 2. 국어교육의 현상 추동력 강화-이론과 실천의 호응
 - 3. 교육과정론적 경쟁력
 - 4.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

I.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을 논하는 기본 입지

이 글은 현 단계에서 국어교육학¹⁾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글

*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1) 이 글에서 '국어교육(학) 연구'는 제도적으로 공인된 학문 분야로 정립된, 학문 차원의

이다. 따라서 연구 방향을 절대 보편의 격률로 확정·확인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준거에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위상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시점에서 국어교육학 연구의 내적 역동성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함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어교육학의 미래적 위상을 위한 일종의 피드백 기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연구 방향' 모색은 국어교육학이 존재하고 작용하는 '지금 여기'의 조건들을 조회하고 모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연구 방향을 요청하는 학문의 내적 요소에는 일차적으로 그 학문의 내용이 있다. 흔히 내용이 연구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믿지만, 내용을 평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교육학에서 내용이란, 그 어떤 질로나 현상을 (국어교육학의 내용으로서) 가치화하려는 인식적 노력이 투사된 과정과 결과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평면적 현상이 아니라, 국어교육학의 인식 틀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어교육 연구 방법'의 회로 속에서 국어교육 내용이 정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내용과 방법은 상호 침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어교육의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하려는 연구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연구의 방향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즉 학문의 살아 있는 지향성[체제]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학문이 놓여 있는 환경의 총체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 학문의 생태론적 위상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의 생태론적 위상이란 학문 자체를 살아 움직이는 구조, 즉 일종의 유기체 개념으로 볼 때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

살아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유기체는 그 자신의 활성에

연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글의 문맥에 따라서는 교육 현장의 실천과 관련한 연구를 포함할 경우도 있다.

너지를 가진다. 그러면서 주변의 다른 요소들과 교섭하는 가운데 생태의 법칙과 질서를 만들어 나가며, 그 생태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일종의 적응 전략을 마련한다.²⁾ 유기체로서의 국어교육학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부단히 조절과 동화를 통한 상호영향의 작용을 해 나간다. 국어교육학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총합을 ‘국어교육학의 생태’로 보고, 국어교육학의 정체(正體)와 기능(機能)과 발전을 이러한 틀 속에서 진단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국어교육학 연구 내부를 향한,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한 철학적 기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생태론적 접근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인데, 총체적 인식론, 관계적 세계관, 탈자기중심적 사고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떤 질료나 현상이나 법칙 등을 단순히 내용(방법)화 하지 말고, 그것들을 국어교육의 내용(방법)으로 가치화하려는 인식적 노력이 투사된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자는(그 과정과 결과를 다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과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의 생태론적 조건은 학문과 인간 삶[세계/현실]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연구방향’은 학문의 생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 생태로부터 파생·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국어교육학처럼 응용학문의 성격을 띤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시사를 가진다. 응용학문에서 학문의 응용성이란 그 학문이 생태론적으로 존립하기 위한 최우선 항목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방향 논의를 국어교육학의 생태론적 조건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려는 것은, 결국 국어교육학이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온전하게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자기결정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이론과 실천의 호응, 국어교육 현상의 확장과 그것의 생산적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2) 대체로 이런 가정 하에서 세계를 보려하는 것을 생태학적 관점이라 한다. 생태학은 원래 자연과학으로서의 발원을 가지고 있으나, 연속성, 총체성, 그리고 자기결정성이 상실되는 탈근대에 이르러서는 인문·사회 영역에도 유효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II. 홀로서기를 위하여- 재개념화 노력

1.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취약성 극복

국어교육학은 학문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모든 학문이 그 고유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지는데, 국어교육학을 비롯한 교과교육학의 경우는 학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항상 심각하였다. 그만큼 학문 기반이 취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기초학문들은 그 정체성과 고유성 유지를 달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를 이루는 기본 질료(자연, 인간, 사회)들을 각기 연구의 대상 영역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불변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응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³⁾ 국어(국어사용/국어문화)의 보편 지식·기능을 교육적으로 변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수·학습의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국면에서 응용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응용학문은 자신이 응용하게 된 원래의 학문 분야에 대해서 얼마간 종속되는 구조 하에 놓인다. 이 종속의 구조가 국어교육의 특성에 맞게 개선되어 질적 변환을 이루지 못하면, 국어교육학은 원래의 배경 학문인 국어학과 국문학으로 환원되는 운명을 면치 못한다. 요컨대, '응용의 문법'을 어떻게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지가 국어교육학의 존재 조건이 되는 것이다. 현상 처방을 위한 기계

3) 국어교육학의 응용학문 속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용주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패러다임을 국어교육의 철학으로 살피는 바탕 위에서, 응용성에 대한 열린 탐구가 필요하다. 당연히 응용학문 자체의 범주와 층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학의 응용 학문적 성격이 설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 응용의 수준으로서는 학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과 일반교육학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국어교육학이 일반교육학 속으로 직접 환원되지는 않겠지만, 국어교육학의 특성과 구체성에 대응되는 국어교육 실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반 교육학의 보편 원리 속에 안주하게 된다. 일반교육학은 국어교육학이 교육일반의 패러다임을 통찰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국어교육과의 학문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호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어교육학은 지식 사회의 헤게모니 맥락에서 보면 기성의 인접 배경 학문에 환원될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할 수 있다. 응용의 가치가 늘 새롭게 창출되지 않으면 기성의 인접 배경학문에 흡수당할 운명을 항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홀로서기는, 남의 것을 빌려 와서 내 것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러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어떤 양적 임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비로소 국어교육학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신뢰를 학문 사회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교육학이 어떤 학제적 구도 속에서 다른 어떤 학문과 대등한 위상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문적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교육학이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기에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전이 많다. 우선 모어 화정의 일상 언어 습득은 굳이 국어교육학이라는 제도적 학문 체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교과교육학의 학문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초학문 쪽의 시각을 들 수 있다. 사회 일반의 시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⁴⁾ 이런 통념을 자신 있게 극복해 내기 위해 우리는 어

4) 최근 10년 국어교육 연구에서 학교 국어교육의 기술적/기능적 정교성을 제고하는 연구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깊게 잠복되어 있다. 학문적 자기 결정성에 의해서 이론이 생성되지 못함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

면 연구 에너지를 추동하고 있는가. 근자 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 성과들이 양적 호조를 보이면서, 기술적 정교성을 얻는 대신에 국어교육학 연구 방향에 대한 거시적 전망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현상의 맥락에서 볼 때 국어교육학은 일정한 명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라는 제도화된 교과를 가르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현상을 연구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어는 굳이 그 담당 주체가 국어교육학이 아니어도 된다는 고정관념에 늘 도전 받아 왔다. 국어교육학이란 것이 없던 때에도 국어의 보편 지식과 기능을 차세대에게 전수하던 현상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수학적 변환을 거친 국어교육의 내용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고 유용하다는 증명을 국어교육학은 해 보여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데서 국어교육학의 연구 정체성이 살아날 것이다.

국어교육학을 비롯한 이른바 '교과교육학'은 그 나름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생성된다. 교사양성이라는 협소한 기능적 목적으로 교과교육학을 설명하는 것은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문의 자기결정성이란 면에서 보면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거를 가지고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을 선정하는 일이란, 해당 지식 분야에 대한 앎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밖에도 사회·문화적인 준거, 발달론적인 준거, 인간과 지식에 대한 철학적 패러다임 상의 준거 등이 동원된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이 교수학적 범주, 교육방법론의 수준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다면 국어교육학은 학문이 되기 어렵다. 그저 자족적인 체계를 가진 교육 실천 기술의 기제 정도로 수렴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을 자가생성해 낼 수 있는 학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는 다른 학문과 명실상부하게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진 학문이 되기 어렵다. 이를테면 경영학이나 윤리학이나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등

이 국어교육학에 대해서 다투어 공동연구를 요청하는 일이 일어나는 수준의 이론이 국어교육학에서 나와야 된다.

요컨대 국어교육학의 고유한 이론 생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어교육학 연구의 우선적 역할이며 기본 명제이다. 국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인문과학적, 사회과학적, 기타 응용학문적 범주의 지식 등을 포함하여)을 국어교육의 입지에서 재개념화 하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이런 일을 현재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학문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어떤 학문적 전망력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국어교육학의 정체성과 재개념화의 의의

논의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재개념화'가 국어교육학 연구의 핵심 항목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응용학문으로서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연구의 중요한 마당이 '재개념화' 노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은 인접 학문 동네의 것을 빌려와서 내 학문 동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소위 응용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자신의 그런 운명을 개척하면서 학문의 위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재개념화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현상 추수적인 연구만 해서는 국어교육학은 언제 통폐합의 기로에 놓일지 모른다.

국어교육학에 비해서 일반 기초학문들은 그 정체성과 고유성 유지를 달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를 이루는 기본 질료(자연, 인간, 사회)들을 각기 연구의 대상 영역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불변의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학은 페달 밟기(응용적 수요)를 생성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운명을 타고 났다. 국어교육학은 인접 좌우 방향(인문학과 일반교육학)의 균형을 내 것으로 조정해 놓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자전거 타기'의 운명을 타고 난 것이다.

재개념화는 교육학 용어이다. 교육과정 탐구 분야에서 일어난 재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정리되는데(Pinar, 1975), 이는 우리가 어떤 문제(질료, 현상)를 국어교육과정의 차원에서 재개념화 하기 위하여 논의할 때, 어떤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시사를 준다.

종래의 기술공학적이고 행동주의적인 교육과정 연구 모형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통하여 전통적 관점이 가지는 탈역사적 성격, 가치중립성의 허구성 등을 지적하거나, 교육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재생산이론, 잠재적 교육과정, 헤게모니 이론 등을 교육과정이 이론으로 착근시키기도 하였다.

또 다른 재개념화 양상으로는 이론과 실제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그 관련성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하였다. 재개념론자들은 전통적 교육과정 탐구가 이론이 없다고 비판하고, 이론바 개념·경험론자들에 대해서는 공허한 이상적 이론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미학적 비판을 시도하여 교수와 학습의 과정이 단순히 목표와 방법을 연결하는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의 형성을 해나가는 실존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파이너의 재개념화는 원래는 교육과정론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여하던 일종의 키워드이었다. 그러나 이 말이 생겨난 발생론적 틀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말은 교과교육학의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태를 지닌 개념이다.⁵⁾ 국어교육학의 정체성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재개념화'를 새롭게 해석·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① 재개념화는 국어교육학 인접 학문 영역의 어떤 요소들을 국어교육 영역으로 가져 와서 새로운 해석의 코드로 국어교육학의 내용 및 방법 요소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이다.

5) 이런 점에서 필자는 '재개념화'의 재개념화가 요즘은 한국 교과교육학의 이론화 장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② 이미 국어교육현상(이론/실천) 내부에 있어 왔던 기존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코드가 마련되면, 이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정립하는 일련의 과정 및 결과이다.

③ 일반 교육현상을 국어교육과의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의 코드로 발견해 내고, 국어교육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새로운 맥락에서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이다.

이 때의 '새로운 맥락'이니, '새로운 해석의 코드'니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개념화의 결과로 국어교육학의 연구, 실천 영역이 질적으로 확충되고,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층성을 바람직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문화적 문식성'을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 한다는 것은 문화현상을 교육 현상의 맥락으로 보는 발상을 요한다. 아울러 문화의 내용과 현상을 언어적 소통의 맥락에서 의미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문화를 내용, 지식, 또는 유산, 지적 형식 등의 수준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개념을 해체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식성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맥락이 국어교육을 향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통적 문식성에 입각해 있는 기존 국어교육의 한 국면을 새롭게 해체하게 한다. 중국에는 재개념화를 거치는 동안에 '국어교육의 철학(이론)'이 스스로 조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박인기, 2002)

Ⅲ. 살아있는 수요 창출— 가로지르기 노력

'가로지르기'란 나와는 결이 다른 낯선 동네를 걸쳐 지나간다는 뜻이다. 결이 같다(다르다)는 것은 체계나 인식의 구조가 같다(다르다)는 것이다. 다인종 사회로 'melting pot'을 지향하던 미국 사회의 교육, 문화, 저술 등에서 자주 발견되던 'cross'란 접두어나 포스트 모던의 인식론이

영향을 준 'trans' 등의 접두사 같은 것들이 '가로지르기'에 해당된다. 사이버 소통이 무한 확장되는 정보화, 세계화 환경에서 지구촌 전체의 교류가 일상화 되는 현시점에서 '가로지르기'란 현대의 일상인들에게도 보편적 경험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문에서 '가로지르기'란 이종(異種)의 영역에 대한 생산적 만남이다. 그만큼 '가로지르기'를 하는 동안에는 모험과 해체가 따를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얻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종의 대상을 만난다는 데 있다. 가로질러 가 버리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어교육학이 그 인접에 나란히 놓여 있는 낯선 부문들을 가로질러 만남으로써,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어교육학 자신을 새롭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 지평을 조금씩 발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응당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가로지르기 노력을 소홀히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가로지르기'를 국어교육학 연구 논의의 핵심어로 제안하였다. 물론 이 가로지르기 속에는 국어교육 내부의 여러 하위 부문들 간의 가로지르기 양상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국어교육학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 학교교육 교육과정의 테이블에 상륙하기 위해, 이념적 또는 실용적 수요를 가진 학문(교과)들이 끊임없이 교두보를 마련하려 혼신의 힘을 발휘한다. 새로 그 테이블에 상륙하려는 교과는 기존의 교과들과 수요 경쟁을 하는 것이다. 수요란 국어교육학 내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 있다. 그 외부란 어디인가. 우리들의 현실 삶이다. 국어교육학 내부의 지식을 정련시키는 것만으로 국어교육의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현실 삶의 다양성(총체성) 속에서 국어교육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학은 현실 삶에 관여하는 이종(異種)의 학문들과 부단히 만나야 한다. 응용성 학문들이 학제성의 기반 구축을 통해 학문적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를 국어교육학도 하나의 모델로 고려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차원에서 국어교육학의 수요의 광맥이 거

의 무진장이다. 다만 개발되지 않는 광산이기 때문에 우선적 관심이 덜할 뿐이다.

1. 국어교육학 연구의 학제성

국어교육학 연구는 여러 면에서 학제적 속성을 가진다.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과 학제성은 당연하며, 교육학과 학제성은 거의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상호성은 국어교육학 자체의 내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상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교과교육학은 오늘날 교과교육학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정도의 상호성을 두고 학제성에 기반을 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앞으로의 국어교육학은 지금까지의 것과 다른 차원의 학제성을 자신의 학문 토양처럼 가져야 한다. 학문 생태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호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국어교육학의 이론 및 내용 생성과 관련해서 학제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여타 학문 범주로, 1) 언어학, 2) 문학, 3) 철학, 4) 심리학, 5) 사회학, 6) 인지과학, 7) 문화연구, 8) 커뮤니케이션학, 9) 교육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교육학이 질적으로 발전하자면, 연구의 학제성을 대폭 확충해 가야 한다. 이는 국어교육학이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하여 원래의 배경학문들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는 데 기여한다. 국어교육학이 현실적으로 차별화된 독자성 있는 연구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학제성을 살린 연구 풍토를 가져야 한다.

제1세대 국어교육학자들⁶⁾은 인문학으로서의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교사양성대학에서 국어과교육론을 맡아서 전공 정체성을 새로이 쌓아 나간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연구 방법론은 인문학적 연구방법론이 주

6) 여기서 제1세대라 함은 1970년대 이후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국어과교육론 강의를 담당하여 연구하였던 학자 그룹을 말한다.

조를 이루었다. 따라서 학제성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국어교육학 전공으로 제도권 학자가 된 제2세대 교과교육학자들 역시 그런 학문 생산 프레임 속에서 자랐다. 오히려 오늘날의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은 일반 교육연구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많다. 학제성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수용이 일반 교육연구 방법론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이 점에서 국어교육학은 엉겨주춤하다. 개방적 태도보다는 방어적 자세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2. 기능주의적 인식 극복

그간 우리의 국어교육학 전통 속에는 국어교육학을 교실 내의 수업 기술 및 처방 차원에서 보려는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아 왔다. 국어교육학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다루는 학문 분야가 됨으로써, 교사 양성의 주된 교육 소프트웨어의 구실을 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구체적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르는 수업 기술의 처방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어교육학 연구를 인식하는 여러 개의 인식 코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면 '기능·기술주의적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주의적 인식 자체가 문제시 될 것은 없다. 학교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수업현상이 존재하는 한은 국어교육학은 그런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관여해야 할 것이다. 그 간 국어교육학은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공적을 쌓아 왔다. 문제는 기능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은 학문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왜냐하면 기능주의적 처방과 실천 원리를 어딘가에서 즉시 수입해 오는 듯한 풍토를 넘어서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기능과 처방의 생성은 학문 자체의 내적 기반과 주변 확충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 국어교육

학이 지금까지 구현해 온 기능주의적 처방과 실천 원리들은 국어국문학이나 일반교육학 쪽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국어교육학이 정교한 가공 없이 사용해 온 면이 없지 않다.

또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기능주의적 인식'만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이 다른 학문들과 대등한 호환성을 가지는 학문의 차원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국어교육학이 생성하는 기능적 처방이나 실천 원리라는 것도, 기능이나 처방보다 상위 수준의 연구 담론들이 집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학문의 상부 구조를 제대로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학 연구의 내적·외적 범주들이 상호작용 하는 가로지르기 양상을 6개의 하위 범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내적·외적 범주-가로지르기의 상호영역들]

<범주1 : 국어가 존재하는 차원에 따른 상관 범주>

- 1.1 국어 구조를 탐구하는 범주
- 1.2 국어 기능을 탐구하는 범주
- 1.3 국어 소통을 탐구하는 범주
- 1.4 국어 문화를 탐구하는 범주
- 1.5 국어 정신을 탐구하는 범주

<범주2 : 국어가 작용하는 차원에 따른 상관 범주>

- 2.1 국어의 심리적 작용을 탐구하는 범주
- 2.2 국어의 사회적 작용을 탐구하는 범주
- 2.3 국어의 문화적 작용을 탐구하는 범주
- 2.4 국어의 이념적 작용을 탐구하는 범주

<범주3 : 국어교육학의 이론 및 내용 생성과 관련되는 상관 범주>

- 4.1 언어학(국어학)
- 4.2 문학(국문학) … …

- 4.3 철학
- 4.4 심리학
- 4.5 사회학
- 4.6 인지과학
- 4.7 문화연구
- 4.8 커뮤니케이션학
- 4.9 교육학

<범주4 :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따른 상관 범주>

- 3.1 국어교육의 철학 영역
- 3.2 국어교육의 목표 영역
- 3.3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
- 3.4 국어교육의 방법 영역
- 3.5 국어교육의 평가 영역

<범주5 : 교육과정 현상의 심급에 따른 상관 범주>

- 5.1 계획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급
- 5.2 전개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급
- 5.3 실현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심급

<범주6 : 국어교육 실천·개발과 관련되는 상관 범주>

- 6.1 교육학
- 6.2 경영학
- 6.3 정책학(행정학)
- 6.4 조사 방법론
- 6.5 정보 공학

<범주1>에서 <범주6>에 이르는 여섯 가지 범주들은 다중(多重)으로 상호성을 발휘하며, 상호 조정을 통해 상호 대입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상호 대입의 관계란 마치 클라인씨 병의 구조처럼, 한 범주가 다른 범주 속에 들어가 하위 항목으로 융합되거나 또는 재배치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학제성과 가로지르기의 개념을 논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반대와 우려

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국어교육의 내용(또는 국어교육학의 영역)이 무한 확장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이다. 학제성을 강조하는 가로지르기의 연구는 국어교육 내용의 단순 부가가 아니라, 질적 재조정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제성을 요청받는 그 자체가 이미 기존 국어교육 내용의 수요에 대해서 수용자 또는 사회 일반이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로지르기 또한 일종의 재개념화 과정을 내포하기 때문에 학제성이 내용의 양적 축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같은 내용 요소들이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재편성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대입의 관계란 것도 학제성이나 새로운 영역 확충이 국어교육의 영역을 평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 <범주1 : 국어가 존재하는 차원에 따른 상관 범주>과 <범주2 : 국어가 작용하는 차원에 따른 상관 범주>는 국어교육의 질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범주화 한 것이다.

* <범주3 : 국어교육의 이론 및 내용 생성과 관련되는 상관 범주>은 국어교육의 이론 내지는 메타 담론을 생성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국어교육의 실재를 전인하는 일종의 상부구조로 보고자 한 것이다.

* <범주4 :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따른 상관 범주>와 <범주5 : 교육과정 현상의 심급에 따른 상관 범주>는 국어교육의 실천 현상을 여러 층위로 범주화 한 것이다. 국어교육 실천현상의 입체성을 살리려면 이들 범주 간의 가로지르기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범주6 : 국어교육 실천 개발과 관련되는 유관 학문 범주>은 국어교육의 제도 정책과 관련되는 여러 기제를 담은 영역으로 잡은 것이다. 이 역시 국어교육을 운용하는 중요한 층위로서, 국어교육의 총체적 생태를 설명하는 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면이다.

3. 학문적 호환성의 정립

현재의 국어교육학은 대체로 다른 기성 학문의 성과를 빌려 온 것을 중심으로 자기 기반을 쌓아 왔다. 학문적 성과를 받기만하는 분야는 아직 그 학문이 미성숙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응용학문 분야는 각자의 성과들이 서로 상대 학문 분야에 흘러들어가서 그 나름의 응용 효과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학문적 호환성은 학문끼리의 성과들을 서로 유익하게 상대 분야에 받고 주는 것을 말한다. 호환성을 발휘하자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상호성과 더불어 상당한 배타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호환성은 일방의 투여성이 지나치게 강한 나머지 배타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두고 진정한 학문의 위상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어교과와 내용이 요청해 오는 교육 이론의 독창성을 국어교육학이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학교육의 경우, 수용미학 이론, 독자반응이론 등의 문예학 비평 이론이 문학 감상 교육이론으로 호환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문학 감상 교육이론 또한 다시 예술교육 일반 이론으로 호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IV. 국어교육학 연구의 도전 과제들

1. 학문적 자기결정력

학문적 결정력이란 국어교육학이 자신의 패러다임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힘을 말한다. 학문적 결정력은 국어교육학 내부에 ① 탐구 대상(현상)의 파악 ② 대상의 메타 인식(연구담론화·이론화) ③ 이론 체계의 구비

④ 대상(현상)-연구담론-이론체계 간의 환류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이들은 상호침투의 성격을 지니면서 순차성과 집적성(集積性)을 발휘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어교육학은 이론 체계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탐구 대상(현상)'과 '개별 연구 담론' 간의 환류는 왕성하지만, 개별 연구 담론들을 통어하는 상위의 이론 체계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적 장르 중심이거나 국어교육의 관점에서는 선언적 형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어교육학이 다루는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을 개인과 사회와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립하는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일반 지식 철학의 패러다임을 따라가기에 바쁜 것이다. 그래서 인지주의가 등장하면 온 세상이 인지주의가 되고, 구성주의가 등장하면 일거에 구성주의가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패러다임 변화의 내적 기제를 국어교육학이 제대로 껴내면서 자기 수정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의 내적 기제를 제대로 껴내기 위해서는 국어교육학 안에 이미 잘 다져 온 이론 체계(이론이 아니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학문 토양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교육학 패러다임이 마치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현 단계 국어교육학은 이와 관련되는 연구 담론을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미시적 기능주의 연구 담론이 왕성한 데 비하면 다소 기형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론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학문은 어느 때이고 쉽사리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다른 학문과 서로 주고받을 이론적 상호 체제에 끼여들 여지가 없다. 교육 현장에 새로운 처방을 강구하기 위하여 항상 남의 학문 동네를 기웃거려야 한다. 학문으로서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일, 학문의 인프라를 폭넓게 마련하는 일을 해 두어야 한다. 지식사회 자체가 학문 간 치열한 경쟁의 무대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국어교육의 현상 추동력 강화 이론과 실천의 호응

국어교육학 연구와 국어교육 실천과의 호응이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국어교육의 현상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강한 추동력을 발휘한다. 국어교육학은 의도적으로 '국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제도 현장[학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어교육 현상을 추동하는 힘을 가져야 하고, 그 힘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무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어교육연구는 이 현상 추동을 위해 이른바 다양한 '개발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현실 교육과정이든 교과서 개발이든, 우리는 그 결과물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이론과 실제의 대응 체제를 국어교육학 연구의 전체 지형 속에서 조화롭게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또는 개발 연구)의 위상을 잘 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 현상 속에서 국어교육의 수요를 발견하여, 그것을 출발점으로 이론과 실천의 연구 체계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이론과 실제의 대응성과 관련해서 국어교육분야는 학문적 담론의 질서가 미분화되어 있다. 이론과 실체가 1:1로 단순 대응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미분화의 증거이다. 교과교육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모형'이나 '전략' 단계의 중간 레벨의 연구 담론 수준이 있다. 그것을 거쳐서 비로소 이론은 실제에 침투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이라는 위상 위에도 소위 '철학'에 해당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학 연구 내부에 소위 거시국어교육학과 미시국어교육학의 분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교육의 철학, 국어 지식 및 기능에 대한 인식론, 가치론, 교육과정이론, 평가 이론, 모형 개발, 연구방법론 등을 거시국어교육학으로 구분하고, 국어교육 실천과 관련하여, 국어과 수업, 교재, 평가 등과 관련한 개발 및 임상적 전략 등을 다루는 미시국어교육학으로 구분 접근하는 체제를 숙성시

켜 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거시이론과 미시이론과 국어교육 현장이 연계되는 양상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교사들이 해야 할 연구 과제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교육학은 학문인 듯하면서 동시에 수요 공급의 지식 상품적 위상을 가진다. 교과교육의 성격이 이러하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노력을 교과교육은 자신의 학문 메커니즘 안에서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학문 혈통의 순수함만을 고집하는 교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 오히려 다른 분야와 뒤섞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는, 이론바 잡종의 코드를 지향하는 교과는 교과로서의 생존 전략을 잘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교육학은 새로운 교육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공장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교과가 이념과 교호하고, 교과가 사회, 문화와 교섭하고, 교과가 정치, 경제와 상호 작용하는 큰 밑그림을 현실과 시대의 각 단계마다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망할 수 있는 힘을 교과교육학이 그 내부에서 길러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실용적 기능의 세련만을 연구하는 교과교육학의 학문 풍토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어교육학 연구, 특히 메타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한 학제적 접근이 부단히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3. 교육과정론적 경쟁력

국어교육학의 교육과정론적 경쟁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는 국어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이념적 실용적 가치와 수요를 더욱 중요하게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교육학에 제공하는 원리나 이론이 교육 일반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교육과정 운용의 전체 판도 속에서 합당한 힘을 인정받는 것이다.

국어교육학 연구는 교육연구의 한 양상이다. 이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인문영역을 다루는 내용교과라는 데에만 국어교

과의 정체성을 두는 듯한 풍토가 있다. 이는 교과를 학문으로 보는 보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어교육학을 포함하여 교과연구의 역동성은 교육연구라는 변인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에 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교육학 현상과 추세에 국어교육을 종속시키지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국어교육(우리)이 만들어 내는 교육적 원리가 교육학의 일반 원리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적 생산력을 국어교육학 이론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독자반응 모형(윤리, 음악, 미술), 학습독서(Read to learn)이론, 공감적 이해(empathy)이론 등이 그러하다.

학문중심 교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의 요청에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교과는 다른 수요에 밀려 퇴출된다. 다만 '지금 여기' 속에 내재하는 전통의 힘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교육 실천 자체가 경박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국어교육연구에서 재개념화 과정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작용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육적 혁신은 지금까지의 지적전통(국어교육연구 현상)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전체 판도에서 교과는 일종의 권력 기제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정치권력과 는 다르지만 일종의 지식 권력의 면모를 가진다. 교과의 이런 측면은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강조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편제를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권력 기제로서의 교과를 실감나게 한다. 학교 제도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는 지식 사회전체의 지형에서 보면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제도 학교의 교과 속에 편입되거나 새로운 교과로 인정받고자 애를 쓰는 학문 분야는 상당히 많다.

국어교육학 연구는 교과의 이러한 권력 기제의 작용태(作用態) 측면을 면밀히 탐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과의 현상 나아가서는 교육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로를 국어교육학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총론은 교육학의 몫이라는 생각 또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각성하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해계모니의 순기능이

강조되는 지점을 국어교육 쪽에서도 내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현 단계 교과교육학은 여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4. 연구 방법론의 다양화

국어교육학 연구에서 방법론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초기 국어교육학 담당 학자들의 학문적 계보가 내용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므로 국어교육학의 주된 연구방법론이 주로 그 내용학에 연원을 둔 것이 많았다. 예컨대 문학교육 관련 연구 담론들이 그 방법론에서 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하는 풍토가 있어 왔다. 국어교육학으로서 문학교육 연구는 자신의 고유한 연구방법론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현재의 국어교육학 연구는 덜 진취적이다.

일반 교육학 분야의 연구 방법론은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법론을 다양하고도 개방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에는 인문학적 요소, 사회과학적 요소, 자연과학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매개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학 연구는 방법론의 확장과 다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방법론과 방법은 다른 것이다. 방법의 실패를 방법론 자체의 오류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할 것은 일반교육학이 제공하는 연구방법론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육 내용 변인이 배제된 채, 교육 방법을 축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들이 국어교육학 연구에 원용되면서 연구방법의 기계적인 적용, 연구방법의 상투성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연구 목적을 심층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방법론이 개발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육 내용으로부터 생성되는 국어교육학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국어교육학의 학문성 정립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이 더욱 세련된 독자성을 가지자면, 학제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학제적 연구는 연구 내용의 응집성과 학문 사회에 수용되는 기여도 면에서 취약하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때문에 학제적 연구 방법론에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어교육학 쪽에서 사귀고자 하는 학문 동네로 더 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원래 1:1의 학제적 연구는 평면적 결합으로 끝나기가 쉽다. 원하는 쪽에서 상대 학문에 대한 사ق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얼마간 인내성 있는 참여와 허용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현 단계 국어교육학이 취하고 있는 고식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것을 잘 감당해 내면 확실히 다른 자신감으로 국어교육학 연구가 지금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2. 18. 투고되었으며, 2005. 3.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박상진(2004), 『열림의 이론과 실제』, 소명출판.
- 박영순 편(2003),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집.
- 박인기(2003), "국어교육학의 생태학적 현실과 전망", <한국초등국어교육>22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창덕 외(1999), 『삶과 화법』, 박이정.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亦樂.
- 정재찬(2003),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亦樂.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亦樂.
- 한명희(2002),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 엘런 벨, 피터 개럿(1998), 백선기 역(2004), 『미디어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Young, Michael F. D.(1998),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London, Philadelphia : Falmer Press.
- Pinar, W. F.(eds.) (1975), Curriculum Theorizing : The Reconceptualists, Berkeley : McCutchan.
- Pinar, W. F.,(eds.) (1988), Contemporary Curriculum Discourses, Scottsdale : Gorsuch Scarisbrick.

〈초록〉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박인기

이 글은 학문 자체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구조로 보는, 생태학적 인식을 토대로, 국어교육학과 현실 지식 환경과의 관련을 살펴, 국어교육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학문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국어교육(학)의 내용이 부단히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의 요청을 살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재개념화는 국어교육과 잠재적 연관을 띠는 현상들,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여러 내용(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국어교육의 생태적 요구에 따라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질적 변환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 국어교육학 못지않게 거시국어교육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재개념화를 위해서는 국어교육학에 대한 총체적 전망력(철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재개념화 전략 하에 추구될 연구 방향은 다음 세 가지 범주이다.

- 1) 기존 국어교육학의 내용으로 이미 고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재개념화
- 2) 국어교육학의 인접 영역의 내용 현상들에 대한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 3) 일반 교육학의 여러 방법 현상들에 대한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다른 영역(異種)에 대한 생산적 만남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가로지르기'는 향후 국어교육학 연구의 주된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한다. 가로지르기는 재개념화와 내적으로 깊이 관련되는 연구 전략이다. 재개념화와 가로지르기가 만남으로써 국어교육학의 학문적·실천적 수요는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국어교육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점에 와 있다. 무엇보다도 철학과 원리와 처방을 스스로 생성하는 학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학 연구의 내적·외적 범주들이 상호작용 하는 가로지르기 양상을 6개의 하위 범주로 제시하였다. 또 '기능주의적 인식'만으로 국어교육학이 다른 학문들과 대등한 상호성을 가지기 어렵다. 생산적 가로지르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능주의의 극복이 중요하다.

다. 이는 물론 기능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속적 관점에서의 극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학 연구는 향후 다음 네 방향의 도전 과업들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 1) 학문적 자기결정력,
- 2) 이론과 실천의 호응력,
- 3) 현실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타 교과와의 경쟁력,
- 4) 연구 방법론의 개방적 다원화

이는 현 단계 국어교육학이 개척해야 할 연구 방향의 상위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학, 생태론적, 정체성, 재개념화, 가로지르기

〈Abstract〉

A Prospect of Direction for Study of
Koeran Language Education
: Reconceptualizing and Acrossing the Curricular Phenomena

Park, In-gee

In this paper, I want to forecast desirable direction for study of Koeran language education, with background of ecological understanding, which is regarded a science as a living organism.

To keep academic identity of pedagogy of Koeran language, its contents and methods must be continually reconceptualized reflecting upon 'here and now' phenomena. In all the phenomena that have latent relations with the pedagogy of Koeran language, for example the phenomena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arts, reconceptualizing for the pedagogy must be enthusiastically attempted.

The process of reconceptualizing for the pedagogy is a kind of qualitative conversion of educational contents among the other areas. Forward the successful reconceptualizing,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up macroscopic pedagogy of Koeran language that requires holistic insight to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ecological view. I want to propose some strategy of study for reconceptualizing as followings.

1) Reconceptualizing the established contents of existed language education.

2) Reconceptualizing adjacent content phenomena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3) Reconceptualizing method phenomena of pedagogy in general.

It is important to enlarge the scientific crossbreeding for productive study. 'Acrossing the disciplines(curricular phenomena)' may be major strategy of development for future pedagogy of Koeran language.

'Acrossing the disciplines' and 'reconceptualizing' are linked with mutual dependence to increase the educational deman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days to come.

I think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requires new paradigm to set up scientific system to form its own philosophy, theory and practice by its own exertion. In this standpoint, the aspects of 'acrossing' may be sub-categorized into six dimensions. The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overcome the functionalism that have contributed since 1980s to assure reciprocal action with other science. Overcoming the functionalism doesn't mean the exclusion but qualitative shift, in short, 'overcoming in continuity' is useful.

Many researche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accept the challenge for its scientific development in the future as followings.

- 1) Originality and self adjus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science
- 2) Concord with theory and practic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 3) Competitiveness of Korean language arts in the actual curriculum
- 4) Openness and pluralism in the method of study